



사진작가 안/장/현

불교문화재들이 있기에 산을 오른다

“산에서 알맞은 광선을 기다리다 보면 종종 하루 종일 아무말 없이 불상 앞에서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불상과 내가 하나가 된 듯한 몰아일체의 삼매경에 빠지지요. 또한 불상의 면모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면 불상을 조성한 선인들의 마음자리를 느끼는 듯 합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던 영국의 등산가 조지 힐러리 경은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산에 오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진작가 안장현(55)씨는 다른 이유로 전국의 산을 찾는다. 그는 불상과 석탑 등 불교문화재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산에 오른다.

◇불상을 촬영할 때는 정갈한 몸과 기도는 마음으로 찾아야 맑고 밝은 미소를 만날 수 있는 사진작가 안장현 씨.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찍어요

초등학교 때 카메라와 첫 만남
군시절 돌부처와 인연 평생 작업
경전 탐독은 정진의 힘 길러줘
석굴암 촬영 가장 기억에 남아
정갈한 몸·마음은 촬영의 기본

“초등학교 5학년때 처음 카메라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평생동안 사진작업에 몰두하며 살 줄은 몰랐습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ROTC 장교였던 군시절 동계훈련을 나갈 때 활랑한 절터의 돌무덤에서 버려진 조그만 돌부처와의 만남이 내 삶의 길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 무엇인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버려진 불교전통문화물 찾아내 카메라에 담아 복원하는 일에 일조하리라.”

1973년 7월, 안 씨는 드디어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를 찾겠다는 마음 하나로 카메라를 둘러댔다. 군 제대 후 안씨가 첫 걸음을 한 곳이 바로 경주 남산이다. 포석정을 출발점으로 선방곡의 배리삼존석불과 삼통곡의 마애관음입상, 선각육존불, 뜻난이 부처로 불리는 선각여래좌상, 얼굴이 손상된 석조여래좌상, 그리고 칠불암, 신선암마애불, 용장곡 3층석탑, 삼륜대좌불, 마애여래좌상 등을 찾아보면서 안 씨는 심각한 고

민에 빠졌다.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고 불교의 근본 사상과 교리에 무지해 산중에 산재해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찾아내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안씨는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등 불교경전을 쉽게 풀어쓴 주석서와 번역서를 구해 탐독했다. 현재까지 30여년간 불교문화유산을 둘러보며 사진작업을 해올 수 있었던 힘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찍을 수 있는 것이 사진입니다. 제대로 찍기 위해서는 먼저 촬영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롭게 해석해 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반복해 셔터를 눌러대기도 하고 원하는 장면을 위해 한없이 기다리기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고행의 연속이지요.”

안 씨가 석불을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게 작업한 곳은 석굴암이다. 굴안의 공간이 협소해 촬영장비와 조명기구의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이곳은 우리나라 불교미술사에서 가장 우수한 걸작품으로 꼽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기구와 장비들이 넘어질 것에 대비해 장비를 고무로 감싸고, 5-6명의 보조요원을 배치하는 등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조명을 받는 순간 살포시 발걸음을 옮길 것 같은 벽면의 보살상들과 인도에서 방금 도착해 고유의 신발들을 신고 걸어 나오는 듯한 아라한도의 모습, 감실인 불보살들의 다양한 자태는 아간작업의 피로가 일시에 날아갈 정도로 외경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법당안에 있는 불상들은 촬영하기에 행복한(?) 대상이었다. 산중이나 인적없는 절터의 석불과 마애불을 찾을 때는 수없이 길을 헤매기도 했다. 또 불상의 위치와 주변 환경, 광선 조건 등을 파악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정열을 쏟아부어야 했다. 대부분의 석불과 마애불은 전각이 없어져 비바람을 맞으며 자연광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 지기 때문이다.

무거운 촬영 장비를 지고 서너시간이나 올라간 산중에서 알맞은 광선을 기다리다 먹구름이 풀려와 서너 번 제대로 눌러 보지 못하고 하산할일도 한두번이 아니다. 때로는 주지스님이 출타중인 법당에서 촬영을 하다 들켜서, 성스러운 성보문화재에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린다고 쫓겨 나기도 했다. 힘든 만큼 보람도 컸다. 여수 흥국사의 감로탱화와 예천 용문사의 만다라 탱화, 송광사의 16국사 진영 등이 분실됐을 때, 안씨의 사진은 원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정보문화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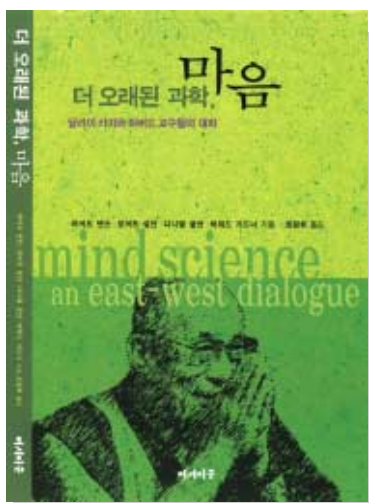
이런 고행의 과정을 겪으며 얻은 결실이 안씨의 재산 목록 1호인 30여만장에 달하는 슬라이드 필름이다. 이것들은 <석불>, <경주남산>, <석가탑과 다보탑> 등 10여권의 책으로 묶여졌다. 올해안으로 <범종>과 <문화유산일기> 등을 펴낼 예정이다. 현재 진행중인 <전탑>, <부도>, <석등>, <불교금속공예> 등 한국문화유산시리즈의 일환인 사진집 발간에도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글=김주원 기자 j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어서이군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대)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명상은 몸과 마음 건강에 큰 도움... 미국인 천만명 '명상 붐'
- <타임>지 최근호 보도



허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년 / 9,000원

마음 더 오래된 과학,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타임>지 최근호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 행동학과 허버트 벤슨 박사가 연구한 명상할 때의 뇌상태 결과를 소개하는 등, 명상이 심장병, 양동의 만성적인 난치성 질병의 고통을 예방하거나 완화한다고 소개했다. 또 우울증, 주의력 결핍 등 심적 불균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명상요법이 널리 활용

된다는 연구결과도 소개하고 있다. 하버드 의대를 대표하는 허버트 벤슨 박사 등 하버드 석학들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 마음과학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이다.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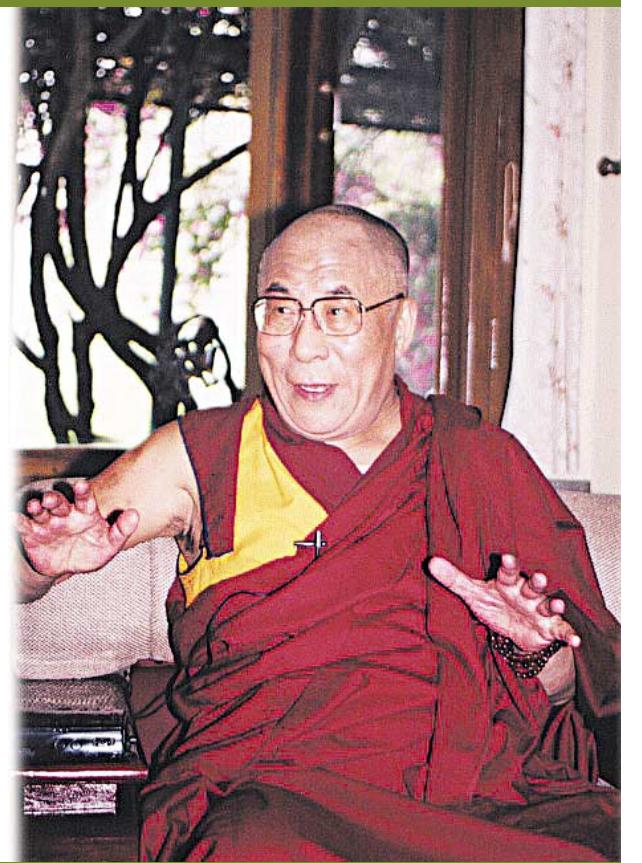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달라이 라마

“마음은 정신적 사상이 상호 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법보시는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

mind science